

Session 09 영광의 통로 : 산-도성인 하나님의 전 (The Corridor of Glory : The Mountain-City of God's House)

I. 하나님의 목적 :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심

- A. 이 장에서는 두 예루살렘(천년 왕국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이 역동적으로 하나 되는, 위대한 산-도성의 부분으로써의 영광의 보좌에 대해 알아본다. 이는 두 지성소, 두 에덴 동산, 두 생명수의 강, 두 나무 그리고 두 대로가 그들 사이의 회오리바람과 영광의 구름을 통해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의 전 또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땅에서의 안식처(사 66:1; 11:10)가 서게 되는 일을 포함하는 부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셨고, 자원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안에서 그분의 집을 찾기를 원하신다(계 21:1-8). 우리는 이 모든 진리들을 함께 하나로 합해서 “영광의 통로”라고 부른다.
- B. **복습** : 하나님의 주요 계획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분의 왕국을 충만하게 세우시는 것에 있다.

그 뜻의 비밀(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쁨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엡 1:9-10)

- C. **복습** : 영적인 영역과 자연계의 영역은 새 예루살렘이 두 단계에 걸쳐서 내려옴을 통해 하나가 된다. 새 예루살렘의 내려옴의 첫 번째 단계는 재림 때에 있으며, 실제적이기는 하지만 부분적인 일이 된다. 두 번째 단계는 천년 왕국 후에 있으며 완전하며 궁극적인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천년 왕국의 이 땅 바로 위로 내려온다. 새 예루살렘이 천년 왕국의 예루살렘과 다르며, 그에 가까이는 있지만 아직 완전히 내려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다섯 가지의 근거가 있다. 땅의 왕들이 천년 왕국 시기에 그들의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계 21:24). 열방을 치유하기 위한 나무 잎사귀들이 있게 된다(계 22:2). 죄인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막는 천사들이 있다(계 21:12, 22:14-15; 창 3:22-24).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나라들을 천년 왕국 지구에서 비추며 구원받지 못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게 된다(계 21:24; 20:7-9). 천년 왕국 예루살렘의 크기는 약 $25km^2$ 이며(4,500척 X 4,500척), 새 예루살렘의 크기는 2,400km나 된다.

복습 :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의 보좌를 세우실 것이다(마 25:31; 렘 3:17; 겔 43:4-7; 숙 6:12-13).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는 천년 왕국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도 세워지게 됨으로, 땅에서의 측면과 하늘에서의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하늘과 땅의 통치가 하나가 되는 것은 두 예루살렘의 하나 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계 22:3). 성도들은 천년 왕국 이 땅에서 다스리게 되지만(마 19:28, 눅 22:29), 새 예루살렘에서 부활체의 형상으로 살게 된다.

- D. 하나님의 소망은 그분의 백성들을 그분의 안식처로 삼으시며, 그들에게 그분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안에 자신의 거처를 두시기 위해 인류를 창조하셨다(계 21:1-8). 하나님께서는 자원

하여 그분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사는 그분의 백성들 안에서, 땅에서의 그분의 거처를 찾으시며 그 안에서 안식하신다. 현재, 하나님께서는 타협하는 그분의 백성들 안에서 힘겹게 서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을 향한 모든 저항들이 잠재워지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안식하신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사 66:1)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His resting place)이 영화로우리라 (사 11:10)

이(시온)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라 (시 132:14)

II. 천년 왕국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고할 것의 명령하심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겔 40:4)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겔 43:10)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겔 44:5)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돌면서)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13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시 48:12-13)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데도다 3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데도다(표준새번역 : 너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한다) (셀라) (시 87:2-3)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새 예루살렘 등)를 나는 목상하리이다 6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7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8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9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데도다 10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11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12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13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시 145:5-13)

III. 하나님의 전(시온) : 천년 왕국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의 하나 됨, 수렴

A. 천년 왕국 예루살렘과 하늘의 새 예루살렘은 성경 말씀에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두 예루살렘

의 하나 됨(수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의 몇 가지가 역동적으로 수렴하게 되는 “영광의 통로”가 서게 된다. 수렴한다는 것은, 하나 됨을 성취하기 위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만나는 한 점을 향해 가까워지는 것을 말한다. 수렴이라는 단어는 두 차원(하늘과 땅)이 각기 다른, 모순되지만 현저하게 연합된 실체로써 하나로 합쳐지는 상황을 말하고 있다. 고대의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이 하늘에 닿기 위해 일종의 영광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 시도한 것이었다.

B. 천년 왕국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에 연결됨을 통해 초자연적인 영광의 측면을 가지게 된다.

여호와와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City),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2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땅, earth)가 즐거워함이어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시 48:1-2)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마 5:35)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향양목이 함께 네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표준새번역 : 성전 터)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들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14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리어 너를 일컬어 여호와와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사 60:13-14)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2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이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 가라 하도다 3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예수님의 재림) 너희는 들을지니라 4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My resting, My dwelling place)에서 증용히 감찰함이 죄 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 7 그 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하며 (표준새번역 :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에디오피아인들)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의 두신 곳 시온 산에 이르리라 (사 18:1-7)

그 때에 예루살렘(천년 왕국 예루살렘)이 여호와와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와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강박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렘 3:17)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천년 왕국 예루살렘)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 (겔 43:7)

그는 그 언약 곧 천 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9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10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11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시 105:8-11)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28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케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겔 37:25,28)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표준새번역 :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7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사 62:1,7)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대상 23:25)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걸 옷을 삼으시고 18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19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편(동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20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예수님)가 시온(예루살렘)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사 59:17-20)

그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사단의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22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천년 왕국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불 못에 던짐을 받음) 23 그 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새 땅에서)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사 24:21-23)

하늘의 예루살렘은 시온 산,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또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지칭된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히 12:2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 21:2)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갈 4:26)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City)을 바랐음이니라 (히 11:10)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City)을 예비하셨느니라 (히 11:16)

- C. 예루살렘은 영원할 것이다(시 37:29; 78:68-69; 104:5; 105:10-11; 125:1-2; 왕상 8:13; 9:1-3; 왕하 21:7; 대상 15:2; 23:25; 28:8; 대하 7:16; 20:7; 30:8; 33:4,7; 사 60:20-21; 겔 37:25).

IV. 산-도성, 시온 : 천년 왕국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의 하나 됨(수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슌 8:3)

- A. 영광의 보좌는 하나님의 전 또는 시온을 일컫는데, 이는 “영광의 통로”로 연결된 천년왕국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을 포함하는 산-도성을 말한다.

그 기지가 성산에 있음이여 2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3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시 87:1-3)

- B. 하나님의 전은 도성(성읍)으로 불리는데, 그 높이는 약 2,400km이다. 지구상의 가장 높은 산(에베레스트)이 해면고도로 약 8km 정도의 높이밖에 되지 않으며, 대기권의 높이가 1,000~1,200km인 것을 생각해보라. 미국에서 미시시피 강과 태평양 사이의 거리를 한 번으로 하며, 캐나다 국경에서 멕시코 국경까지의 거리를 한 번으로 하는 넓이가 대략 새 예루살렘의 기저(2,400km X 2,400km)와 비슷한 넓이다.¹⁾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척량하니 일만 이천 스다디온(약 2,400km로 산-도성이 된다)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17 그 성곽을 척량하매 일백사십사 규빗이니 사람의 척량 곧 천사의 척량이라 18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계 21:16-18)

- C. 하나님의 전은 또한 산으로 불리는데, 도성인 동시에 산의 특성을 가진다. 이는 산이자 도성이 되는데 (산-도성), 천년 왕국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이 역동적으로 하나(수렴)되는 곳이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땅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2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복수개의 산들)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떨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3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 (사 2:1-3)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치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23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 (겔 17:22-23)

- D. 천년 왕국 예루살렘은 (아마도) 천년 왕국 땅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질 것이며, (새 예루살렘을 포함하는) 여호와의 전의 궁극적인 산과 연결된다. 이는 에스겔이 본 “극히 높은” 산이다. 그는 천년 왕국 예루살렘(겔 40:2; 17:22, 20:40)에 대해 하나님의 궁극적인 산의 남쪽에 있는 것으로 묘사했다. 현재의 예루살렘은 해면고도로 겨우 750m일 뿐이다.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 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 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 10 온 땅이 아라바(평야)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슌 14:4,10)

1) 역자주 : 새 예루살렘의 한 변의 길이는 서울-부산 거리(410km)의 약 6배에 달하는 거리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이스라엘)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남으로(새 예루살렘의 남쪽 편)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천년 왕국 예루살렘)이 있더라 (겔 40:2)

여호와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2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천년 왕국 예루살렘의 북쪽) 시온 산(새 예루살렘)이 그러하도다 (시 48:1-2)

E. 이것의 높이는 천년 왕국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의 수렴의 역동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와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 ... (렘 31:12)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고 69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시 78:68-69)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이시도다 (시 99:2)

예루살렘은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지속된다(사 2:1-4; 27:13; 56:7; 66:20; 겔 17:22-23; 20:40; 40:2; 욥 2:1; 3:17; 습 3:11; 숙 8:3; 시 48:1-2)

V. 북쪽의 새 예루살렘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며 큰 왕의 성 곧 (천년 왕국 예루살렘의)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시 48:2)

A. 이 도성은 그 높이가 2,400km가 될 뿐만 아니라, 천년 왕국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동일한 길이를 가지면서 “땅(지구)의 북쪽”으로 펼쳐지게 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저 멀리 북쪽 끝)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거리라 하도다 (사 14:12-14)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23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욥 37:22-23)

그는 북편 하늘을 하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욥 26:7)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예수님의 전차-보좌)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

이 그 사면에 비취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겔 1:4)

- B. 새 예루살렘과 연결되는 천년 왕국 성전은 천년 왕국 예루살렘의 북쪽에 위치한다. 이는 에스겔서 47:13-48:35에 설명된 위치와 크기에 대한 설명을 비교해볼 때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천년 왕국 예루살렘)이 있더라 (겔 40:2)

- C. 새 예루살렘은 북쪽에 위치해 있지만, 천년 왕국의 강은 성전의 동쪽으로부터 흘러나온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겔 47:2)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 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 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슌 14:4)

VI. 산-도성 : 지성소의 역동적인 수렴

- A. 지성소는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다. 새 예루살렘 전체는 궁극적인 지성소 자체가 되며, 하나님의 보좌는 지성소의 특징들을 나타내는 (다이아몬드, 벽옥과 같은 빛의) 영광의 물결을 계속적으로 흘러보낸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1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다이아몬드)과 수정같이 맑더라 (계 21:10-11)

- B. 천년 왕국 성전의 지성소는 (새 예루살렘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가 죄로 더럽혀진 지구 위에 존재하게 되는 것은 매우 독특한 모순적 상황이다. 그 영광으로 인해, 죄로 더럽혀진 인간(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은)이 예수님의 초월적인 순결함에 맞닿게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된다(출 33:20-23; 19:21; 20:19; 창 32:30; 삿 13:12-22; 계 22:4). 이 모순은 (부활체의 몸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성전(겔 40-48장)으로 가까이 오기 위한 엄격한 과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또 가라사대 네(모세)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출 33:20)

- C. 성전과 이사야는 예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닿는 것만으로도 요동하며 떨어야만 했다. 예수님께서 (에스겔이 예언한대로) 천년 왕국 성전에 보좌로 임하실 때,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임재로 인하여 떨어게 될 것이다.

웃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 4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하리라 5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였음이로다 (사 6:1-5)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천년 왕국 예루살렘 성전) 내(예수님)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 (겔 43:7)

- D. 예수님께서 그분의 임재의 작은 부분을 기도 모임 가운데 풀어놓으셨을 때 모든 건물이 진동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행 4:31)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계 20:11)

- E. 천년 왕국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지만, 그에 반해 천년 왕국의 땅은 그 충만함의 부분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천년 왕국의 땅은 영광의 충만한 분량까지는 아니지만, 계시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천년 왕국 예루살렘의 지성소는 사도행전 2장에 급하게 임하신 영광의 바람과 물결과 같은 충만함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성소가 지성소 되는 이유가 될 것이다.

- F.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됨으로 인해, 온 땅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계시의 영은 전 지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 영광의 임재의 충만함은 새 땅에 임한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될 것이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합 2:14)

- G. 죄가 완전하게 소멸해버림으로 인해, 새 땅은 충만한 영광의 임재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민 14:21)

VII. 영광의 보좌(산-도성) : 두 에덴 동산의 역동적인 수렴

- A. 위에 있는 에덴 동산에는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밧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 22:1-2)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창 3:22)

- B.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은 천년 왕국 성전을 통해 흐르게 되며, 천년 왕국의 나라들

가운데 치유를 가져다 줄 것이다.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는 하나의 실제의 두 가지 서로 다른 표현으로써 깊이 연관되어 있다. 생명수의 강은 생명나무의 생명의 원천이며, 또한 생명나무는 그 과실을 먹는 자들에게 생명의 원천이 된다. 생명수는 천년 왕국의 지구와 새 예루살렘에서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새롭게 하는” 직접적인 원천이 된다. 사해(겔 47:8)는 매우 많은 광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바닷물은 5%, 사해는 25%), 그 안에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다. 생명수의 강은 사해의 물들을 회복시키는 초자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겔 47:9-10).

그(천사)가 나를 데리고 (천년 왕국)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 4 ...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 척을 척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5 다시 일천 척을 척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 7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8 그(천사)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사해)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9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겔 47:1-9)

- C. 과실이 가지는 역동적인 치유의 능력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으로 인함이다(겔 47:12). 강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열방으로 흘러갈 때, 이 강은 나무들로 하여금 초자연적으로 치유하고 회복케 하는 열매를 맺게 한다(겔 47:12). 물은 광야(사막)로 흘러들어서 황폐하던 지역을 변화시킨다(사 35:1-8). 이 강은 에스겔서 47:1-12절 말씀에 표현된 부분들을 성취하는 실제적인 강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 안에서 흘러나오는 구원의 강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이기도 하다. 이 강은 이 땅의 초목들이 변화되는 이유 중의 한 가지가 된다(롬 8:19-23; 사 11장; 35장).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12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겔 47:7,12)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스라엘)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겔 36:35)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27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 29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표준새번역 : 기름진 옥토)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겔 34:26-29)

- D. 에덴 동산 (겔 34:26-29; 36:8-11,30-35; 47:6-12; 사 35:1-8; 창 3:22; 말 4:2; 계 22:1-3)

- E. 강은 사막화된 지역들에 새로운 생명을 선사할 것이다. 이 강은 얼마나 길게 이어지게 될 것인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2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 그것들이 여호와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 6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될 것이며 병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사 35:1-6)

- F. 두 강의 역동적인 수렴은 지구상에 주목할만한 이 강을 만들게 된다. 이것이 연못이나 샘물이 아닌 강이라는 사실은 이것이 어디로 흐르던지 동일한 실체를 전달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 강을 통해, 새 예루살렘에 존재하는 실체들이 이 땅 위로 흘러가게 된다. 이는 새 예루살렘의 보좌로부터 시작해서, “영광의 통로”를 지나, 천년 왕국 예루살렘의 지성소에 있는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게 된다. 이는 역동적인 수렴의 신비스런 차원을 보여준다.
- G. 생명수의 강은 광야에서 모세가 내려친 바위에서 예언적으로 볼 수 있었다. 이는 땅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없는 생명수의 강에 대한 명백한 예언적인 그림이다. 대략 3백만 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생축들까지 이 이 돌에서 흘러나온 물로 매일 목을 축였다. 우리는 바위에서 흘러나와 이스라엘을 위해 공급된 이 강이 얼마나 길게 흘러갔을지 상상만 해볼 뿐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이 바위는 천년 왕국 보좌의 예언적인 상징이었다. 모세는 처음에는 반석을 내리치면 되었다(출 17:5-6). 그 후에, 그는 그것에 대해 명하는 일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내리쳤다(민 20:7-11). 바울은 반석을 두 번 내리침으로 물이 나오도록 한 일이 왜 그렇게 심각한 일이었는지에 대해 해석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전 10:4)

VIII. 영광의 보좌 (산-도성) : 두 대로의 역동적인 수렴

- A.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룩한 대로에 대한 적절한 질문을 해보자면, 누가 그 대로를 사용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인은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사 35:8)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 4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 (시 24:3-4)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계 21:12)

그 두루마기를 빼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15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 22:14-15)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음이며 5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6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7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8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견고케 하시리로다 (셀라) (시 48:4-8)